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8호

2010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운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사랑의 김장으로 따뜻한 겨울나세요”

신한금융그룹과 ‘사랑의김장김치’ 나누기

예년보다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에 따뜻한 손길이 모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고경남)가 주관한 ‘201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11월 20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신한금융그룹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양념 만들기과 김장김치 담그기 과정으로 진행돼 자원봉사자와 신한금융그룹의 제주지역 자회사 임직원 등 150여명이 배추 1000포기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양념을 가득 채워 비공개 여성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자원봉사자는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김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서로의 정도 나누고 사랑도 느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비록 작은 행복을 나누는 일이지만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며 활짝 웃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이 손수 김장을 담그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알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과의 어울림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허창기 제주은행장은 “따뜻한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우리 지역의 많은 이웃에게 전달돼 힘든 겨울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임직원들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대상사업은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주도내 주소소를 둔 일반도민, 시설, 법인, 단체, 기업체, 대학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도지사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 2명(도지사 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에 우선 제출돼 최종 선정될 경우 2억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전이 도민 바우처 홍보는 물론 다양한 사회서비스분야 개발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국상회
시설탐방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소식 4·5면
손소리빛연주단·소식마당
민들레작품전시회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포지엄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방문목욕·간호서비스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0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들은 가사, 외출 이용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법적인 기반을 갖춰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 복지서비스 사업이 확대돼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s JEJU



* 제주마썸 브랜드 소개

제주마썸은 제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로지원을 위한 공동상표로써 지역문화의 특성, 자연환경과 최대한 연계하면서 언어의 조화성을 고려해 ‘제주입니다’의 제주방언인 ‘제주마썸’과 영문표기인 ‘It's JEJU’를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의 넉넉한 미소와 함께 담아냈습니다.

2010
MASTER
BRAND
2년연속
2009, 2010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청정 제주의 우수한 특산물



제주마썸은 농·수·축·임산물, 다양한 가공품까지 제주의 청정함을 담은 제주도 공동브랜드입니다

보육시설 368곳 평가인증 획득

전국 평균 64%보다 11%p 높아

제주도내 보육시설 520곳 중 368곳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297곳에서 71곳이 늘어 총 368곳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또 현재 보육시설 44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 의하면 평가인증률이 지난해 말 63%에서 현재 75%로 12%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전국 평균 64%에 비해 11%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의 질 수준 관리·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제도로, 보육현장의 의지와 보육교사들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는 보건복지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되며, 시설 규모별로 50만원~15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70만원~300만원)와 보육교사의 보육활동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평가인증시설 중 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계획

시 우선 추천권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인증시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지표교육과 인증시설 방문·견학 등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미참여 시설과 미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평가인증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들이 우수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넷과 보육시설 평가인증국, 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보육시설 정보와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도노인복지관 개관...종합노인복지센터 역할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억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731 기적의 공원에 연면적 1219㎡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복지관을 신축, 11월 23일 개관행사를 가졌다.

주요시설로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장,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어 명실상부한 종합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에 위

탁해 운영된다.

실내외 인테리어, 장비 확보 등 시설 보강과 함께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요교실, 요가, 컴퓨터교실 등 11개 분야 18개의 프로그램을 개설, 47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노인자원봉사단, 동아리 운영 지원과 일자리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1회 장애인 문화관광 페스티벌 '성황'

제1회 장애인 문화관광 페스티벌이 11월 25일~26일 1박2일 동안 전국 각지의 지적장애인과 보호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내 관광지를 비롯한 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제주관광복지사업단 해피누리(단장 임태봉)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관광서비스분야 직업재활 체험과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소인국테마파크, 오설록, 성산일출봉 관람을 비롯해 승마체험과 감귤따기체험 등의 관광프로그램,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접목시킨 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가을 제주의 정취와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선사했다.



특히 해피누리 소속의 지적장애인 관광가이드가 관광 안내를 맡아 참가자들에게 관광서비스 분야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적장애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경연대회를 열어 직업재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해피누리는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선정되면서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운영주체가 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여행서비스 제공과 관광서비스분야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 종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김선화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행복지킴이로 활동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의 권익증진과 노인학대에 방을 위한 이동상담사업을 진행했다.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을 통해 방임 및 학대위험에 노출돼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례별 2회 이상 가정방문과 월 2회 이상의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은 노인학대예방교육, 홍보물품 배부 및 지역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 향상과 권익증진,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상태 확인,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중증질환 지원 확대등 보장성 강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33%에서 5.64%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올해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를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애인과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3319억원 규모로 추가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격 운영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택시요금의 40% 정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이달부터 본격 운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5대를 구입하고 제주시 일도2동 329의 13에 132㎡ 규모의 (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마련해 11월 19일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 3급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정도이다. 기본요금은 2km에 1000원, 거리요금은 350m 100원, 시간요금은 100초당 100원이다. 이용일 하루 전에 콜센터(756-8277~8)로 예약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강철수 과장과 직원들은 10월 30일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성치요양원을 찾아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발 마사지를 하면서 위로했다. 또 산책로와 주변 잡초제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50,000	85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480,000	480,000
복지사업후원	1,260,000	1,200,490
푸드마켓후원	1,790,000	652,9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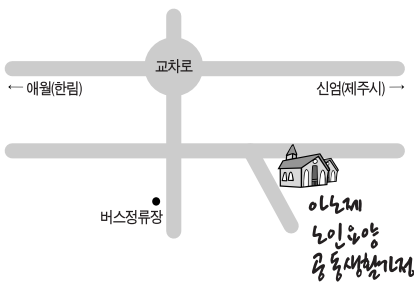
시설탐방

(37)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쉼터

가을의 끝자락, 어느새 싸늘해진 바람을 맞으며 서쪽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서 올레길 15코스가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장 강미경)을 찾았다.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현대사회에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소외되는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유지는 물론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평화롭게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고자 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다.

꽃동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던 강미경 원장과 이해숙씨(요양보호사) 둘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가 2008년도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로 선정돼 2008년 10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문을 연 이후 현재 할머니 4명과 직원 4명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직원들은 규모가 큰 시설에서의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달리 보다 가정적이고 친근하며 사랑이 듬뿍 담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도 시설이라는 이미지보다 가정집이라는 생각으로 애정을 갖고 찾아오며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아노제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엔 주로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족욕,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목욕 및 이발, 스포츠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저녁식사 후에는 담소시간, 건강체크 또는 TV시청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강미경 원장은 “소규모시



강미경 원장 “나날이 밝아지는 모습에 보람”

설이고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아 지 원도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밝아지는 모습을 보거나 어르신 가족들의 감사인사를 들을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평생 스킨십이 어색했던 할머니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애정표현을 너무 잘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했다.

한때 시설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위한 주·야간 노인보호서비스를 계획했지만

아노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해 주·야간 서비스 계획은 접었다. 대신 아노제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오갈 곳이 없어 고달픈 사람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곳 종횡만람이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노제의 식구들이 오래도록 건강히 잘 지내길 기도하며 발길을 돌렸다.

〈김용성 명예기자〉

제주도, 사회복지·여성정책 전국 ‘우수’

인센티브로 7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와 여성정책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뚝 선 지자체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보육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 등 총 18개 지표 가운데 11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종합 가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성정책분야도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실적 등 총 7개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가’ 등급을 받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시책개발,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내년도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SK에너지 제주천사단 시각장애인복지관서 봉사활동

SK에너지(주) 장석찬 전무와 제주천사단은 10월 27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을 방문,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제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녹음봉사와 워드입력봉사에 참여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에 헌신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는 SK에너지(주) 제주천사단은 이날 장석찬 전무와 함께한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0 보조공학 세미나&전시·체험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는 11월 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10 제주보조공학 세미나 및 전시·체험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장애인들에게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모으고 실질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보조공학서비스 발전 방안(좌장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에 대해 경기도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황민영 연구원이 ‘보조공학서비스의 실효성 및 효용성’을 주제로, 제주장애인보조공학연구지원센

터 송창현 연구원이 ‘보조공학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가 ‘자립생활과 보조공학(당사자중심)’에 대해, 그리고 서울DPI 정지영 사무처장이 ‘유니버설디자인과 보조공학’에 대해 토론발표를 했다. 또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성욱 간사의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는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또 전시·체험관에서는 보조공학기기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설명한 포스터가 전시됐으며,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이 유니버설디자인과 보조공학기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

KT 봉사단 복지부장관 표창

KT제주마케팅본부(본부장 오홍석) 소속 사랑의봉사단은 11월 1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4회 푸드뱅크 식품나눔 전국대회에서 푸드뱅크를 통한 나눔문화확산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음악 즐겨요”

심금을 울리는 ‘손 소리 빛 연주단’

듣지 않고 음악을 느낀다? 듣지 않고도 음악을 즐길 수 있을까?

뭔가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듣지 않고도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음을, 그리고 즐길 수 있음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손 소리 빛 연주단’.

제주시 외도에 위치한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저녁이면 악기소리가 찰랑찰랑하게 울려 퍼진다. 손 소리 빛 연주단 연습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에 도착하고 주차장에서 걸어올 때부터 복지관 4층 강당 앰프에서 기타소리가 들려온다. 자신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퍼져 나가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신나게 리듬에 맞춰 최근 배운 기타 리프를 연습하는 중이다.

이들은 2007년 타악기 연주로 시작, 지난해에 ‘손 소리 빛 연주단’이라는 밴드를 결성했

다. 밴드 결성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 홍금희 팀장의 역할이 컸다.

홍금희 팀장이 영지학교 초등부 시절 선생님에게 “어떻게 듣지 않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열심히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충고를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다가 마침내 밴드를 결성한 것이다. 평소에 음악을 즐기고 싶어 했던 마음과 더불어 청각장애인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합쳐져 결국 이뤄낸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장애라는 기준으로 된다. 안된다 자체를 사회적 편견으로 규정해 버리는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 아닐까.

기타를 지도하고 있는 김용성씨는 “기타연주자이면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해서 평소에 장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더구나 청각장애인들과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내 음악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뜻 깊은 일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으로 감동을 끌어낸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처음 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음악을 어떻게 느껴요?”라는 질문에 그들은 마음으로 느낀다고 대답한다. 멤버들간 눈빛 교환, 각자의 움직임, 그리고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그들은 합주를 해낸다. 건청인들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한없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들과 같이 호흡하며 합주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단순한 음악이

라는 차원을 넘어서 진정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 뭘까라는 것을 곱씹으며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밴드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 “합주가 잘 맞을 때”라는 이들은 “큰 무대로 뻗어나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밴드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어찌 보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이러한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까.

〈양정선 명예기자〉



아라복지관 청소년 연극공연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11월 1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나를 찾아, 꿈을 찾아’를 주제로 청소년 연극을 공연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아라중학교와 신성여자중학교 학생 22명은 지난 7개월간 극단 다솜 변종수 대표의 지도를 받으며 연극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했으며, 공연에서는 뛰어난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송죽원 리듬합주팀 케어하우스 방문 공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의 지적장애인 리듬합주팀과 음악을 사랑하는 송죽원 거주인들이 제주케어하우스 ‘40차 행복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리듬합주 공연을 했다.

이번 공연은 비장애인처럼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던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 케어하우스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펼칠 수 있어 보람이 컸다고 송죽원은 밝혔다.



유진재활센터 뽀세오름 등반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11월 13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등산교실 ‘우리는 푸르지요!’를 진행, 어리목에서 출발해 한라산 뽀세오름을 등반했다. 유진재활센터는 2년에 걸친 등산교실을 통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으며, 친구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점이 보람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소/식/마/당

녹색희망 프로젝트 원예치료 교육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회장 한동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10월 27일 ‘사회복지시설 녹색희망 프로젝트’를 주제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을 방문해 원예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과정도 병행돼 교육 참가자들은 원예치료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미리내봉사단과 사랑나눔 나들이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10월 10일 지역자원봉사단체인 ‘미리내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중증장애로 인해 자주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생활인들과 함께 ‘더파크’를 관람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생활인 모두 심신이 불편해 외부와의 접촉 기회가 적었으나, 미리내봉사단의 후원으로 생활인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간보호아동 발표회 개최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11월 17일 아간보호아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와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아간보호아동, 자원봉사자, 교사가 하나 되어 영어뮤지컬, 오페라, 기타, 플루트 연주를 선보여 보호자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사회연계기관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원(원장 임철남)은 11월 10일 풍림리조트에서 지역사회연계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여한 지역사회연계기관에 상패를 수여했고, 독거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좋은인연봉사회 창립 10주년



좋은인연봉사회(회장 고영봉)는 11월 18일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회원간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간담회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11월 13일 휴먼네트워크 프로그램인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 간담회 및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희망의 날개달기 멘토링’은 의지와 재능은 있지만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결손빈곤가정내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1:1로 연결해 화력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요”

중증장애인 자조모임 ‘민들레’ 작품 전시회 열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do we?”
제주케어하우스 자조모임 ‘민들레’ 작품 전시회가 고영미(뇌병변1급) 회장의 ‘우리라고 왜 못 하겠습니까?’라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부터 6일간 제주케어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2009년 자조모임 ‘민들레’ 결성 이후 회원들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문화 체험과 한지공예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향상된 중증장애인의 자존감과 역량,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돼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휴지각 케이스와 부부차상, 다용도 합 등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자조모임의 활동을 지켜왔던 문양숙 사회복지사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며 감동했다”며 “특히 김시형씨는 작품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아요!’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시회 개최를 통해 회원들은 ‘나도 할 수 있다, 함께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또 다른 일에도 전을 계획 중이니 꼭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민들레’는 앞으로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과 함께 내년에도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민들레는 사회적응 준비단계로서 중증장애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주케어하우스,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애덕의 집, 사랑의 집 등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4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장애를 주 장애로 하는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현재 활동하고 있다.

〈고관우 명예기자〉

이마트와 사랑마일리지 적립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10월 28일 이마트 서귀포점(집장 김재훈)에서 ‘사랑의 지역마일리지 적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마트 서귀포점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수증 모금 운동을 벌였으며, 아동지킴이 서명운동과 함께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아동

권리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자 실시했다.

‘사랑의 지역 마일리지 적립 캠페인’은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행사로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물품 구입 후 영수증을 모금함에 기부하면 이를 통해 모아진 영수증 금액의 0.5%를 학대피해아동들에게 기부하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사랑의 지역 마일리지 적립금은 학대피해아동의 생계비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날 처음으로 실시된 영수증 기부 캠페인을 통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아동들을 위한 좋은 일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상 속의 나눔 문화 정착과 더불어 아동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비청소년지도사 체험프로그램 실시

제주청소년지도사회(회장 강철남)는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청소년지도사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예비청소년지도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의 청소년 활동의 현장이해 및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이번 프



로그램은 청소년문화체험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청소년시설 탐방 등으로 이뤄졌다.

작은세상봉사단, 김치등 지원

작은세상봉사단(단장 김정심)은 11월 21일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 20가구에 단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5포기와 쌀 10kg을 각각 전달하며 위로했다.



11월 식품 기탁자



▲ 제 주 특별자치 도개 발공 사=삼다수 2l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 제주미끼=돈육 등 200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금 50만원 ▲(주)금죽산유통=육류 280kg ▲서문식품=두부 336도, 콩나물 120봉 ▲김치원=김치 40kg ▲싱싱부식=김치 15kg ▲고용범=김 3상자 ▲이에도 지역지활센터=채소 165kg ▲손뜻모아봉사회=가래떡 120kg ▲고태홍=감귤 320kg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 아가의집 방문

품살마진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 내외가 10월 31일 혜정원 아가의집을 방문했다.

도르지팔랍 주한 몽골대사 내외를 대동하고 방문한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은 아가의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둘러본 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몽골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호 교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은 몽골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고 초대 대통령을 거쳐 현재는 몽골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성심원 사랑의집울타리 공사

동계주로타리클럽(회장 강창훈)과 대구88로타리클럽(회장 이동희)은 10월 28일 성심원 사랑의집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위험 방지를 위해 800만원을 들여 울타리 공사를 시행했다.



“직업의 소중함 느꼈어요”

본지는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지 체험을 한 가를로의 집 김수아씨의 소감을 게재한다.



저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취업중인 식구들과 함께 서울에 선진지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교남소망의집 그룹홈’에 가보니 선생님 한분과 이용자 4명이 살고 있었고, 식구들이 참 단란하게 사는 것 같았으며 남자들이 살고 있는 방인데도 깨끗하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나도 저금을 많이 하여 그룹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남소망의집에서 운영하는 직업장 열림 공방에 가서 풀판지, 본죽 식당에 들어가는 손가락 넣는 일을 보면서 직업의 책임감과 직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룹홈 방문 후 종로에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난생처음 줄을 서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경복궁과 국립박물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들을 구경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녁에 청계천과 동대문에 갔는데 낮에 동대문은 자주 가 보았지만 밤에 지하철 타고 동대문에 가보긴 처음이어서 정신이 없고 선생님을 따라 다니는데 바빴습니다. 서울은 사람도 많고 불빛도 번쩍번쩍 거리는 곳

이였습니다.

이튿날에는 에버랜드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사서 실컷 놀이기구를 타며 스트레스를 확 날려 보냈습니다. 셋째날에는 약현성당에 가서 전시관도 관람하고 미사도 보았습니다. 약현성당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결혼식장면이 나왔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사회복지 다운회 ‘해디미’도 가보고, 강남구 직업센터에 가서 비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운증후군 아이가 보지 않고도 비누상자를 접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1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적장애인들이 선생님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3박 4일이 빨리 지나갔으나 직업재활센터들을 견학하면서 아주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직업의 소중함을 느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서울에 가지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칼럼

취약계층 '토탈케어' 안전망 구축 필요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제주의 산업구조가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모도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이리다보니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 어려운 기업여건에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구직단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영위기·고용환경 열악 악순환

제주의 산업구조는 2009년 현재 1차와 3차산업 비중이 9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 규모도 매우 영세하다. 10인 미만 근로자 기업체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오히려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열악한 고용환경이 맞물리면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1차산업은 개방 확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빛만 늘어나고 있다. 3차산업은 관광을 중심으로 확장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실업률은 2%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특히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10만명을 조금 넘고 있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 실업자는 2000명 이내로 매우 양호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취업준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으로 볼 때 그 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2009년 5만6000명, 2010년 상반기 5만8000명으로 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용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빈곤층 '워킹푸어' 등을 양산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에 등록된 제주지역 구인·구직 일자리 월 평균 급여 수준은 130만원대이다. 이는 지난해 제주지역 월 평균 임금 183만원보다도 50만원 정도가 낮아 임금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해서 취업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2010년 10월 기준 워크넷 제주지역 취업성공률은 19.6%에 그치고 있다. 취업이 안 된 이들은 또 다시 장기실업에 빠지고 있다. 실직경험이 있는 이들 구직자가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45.4%에 이른다.

고용안정조례 등 제도적 장치 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위기가정, 워킹푸어, 구직단념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경제활동참여자들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비고용 영역의 실업자들도 사회적 부의 창출을 위해 일정 부분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과 과실에 있어 비고용 영역은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고용과 연계된 토탈케어 시스템 복지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위기 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취업과 복지, 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토탈케어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조례' 등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제주지역 경제환경에 맞는 사회안전망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시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부원장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실천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격동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이 가정보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

회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필자는 노인복지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시행 이후 노인복지실천현장의 일부 우려되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 시행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에만 매진한 결과,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팽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노인복지시설 확충률이 188%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준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간 서비스 이용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보다 더 심각하게 주목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날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복지시설서비스 제공이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관계로 전환되면서 어르신과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고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은 향상되었으나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날이 '까칠하고 도도해지는' 고객들 앞에서 종사자들은 한없이 작아지기 일쑤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종사자들이 제도 시행 이후에 노인복지현장을 떠나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앞에서 노인복지실천현장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사회복지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정하고'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정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이 종사자의 자존감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의 본질은 사회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지, 많은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사랑을 보편적인 가치로 여긴다. 상호간에 주고받는 쌍방향의 사랑만이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드는 계절에 마음민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느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사자에 대한 존중없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 처우개선은 고된 업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사자에 대한 인권 존중은 그들이 자존감을 갖고 서비스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0년의 끝자락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 곳곳에서 북북히 한 해를 달려 온 사회복지종사자들, 당신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서로 위안이 되어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고 나직하게 속삭여본다.

기고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김 영 환
서귀포시 서흥동주민센터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 인구의 7%를 상회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

문에 대책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노인과 보육관련 정책들은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경제체제 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 노인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 전문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산은 커다란 문제이다. 저출산은 여러 가

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출산, 보육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公)교육의 강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私)교육의 활성화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부 홀로 해 나갈 수는 없다. 정부, 민간부문, NGO 등이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이루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집행된 후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정책시차(Policy Lag)를 잘 감안하여 적절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회흐름에 어긋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도 희망찬 기대로 변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심포지엄

“요양서비스 확대 · 욕구만족 서비스 필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분과(분과장 최만제)는 시행 3년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아보고 요양보험제도의 공과(功過)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심포지엄’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심포지엄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분과(분과장 최만제)는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체적 증상 증시로 정신적 증상 대응 미흡 요양기관 증가 급격...서비스 질 저하 우려

발제자로 나선 박태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복지는 곧 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고 노인복지계의 이슈들도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노인인가가 급격하게 늘면서 요보호노인의 증가 못지않게 일반노인의 증가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며 “노인복지의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인 요양·수발의 대책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자칫 장기요양제도 그 자체에 너무 매몰돼 노인복지의 전체 맥락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변화 양상을 이용자, 공급자, 서비스, 관리체계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용자**=이용자의 경제력에 따른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서비스 필요에 따른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등급관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

용자 제한은 보편적 보험체제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등급판정에 있어 신체적 증상을 증시하는 경향으로 정신적 증상(치매)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공급자**=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로 인한 경쟁적 시장체제로의 전환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증가는 공급자간 과잉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저하, 제도의 불신 등의 우려와 함께 공급의 지역별 편중화 현상이 심화돼 농어촌지역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이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서비스**=요양서비스 이용자 노인 및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노인세대가 될 베이비 부머들이 현재 수준의 서비스에 만족할 것인지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역량과 직결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무한 경쟁에 따른 인건비 삭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 부실,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

제는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관리체계**=노인복지서비스의 관리주체로서의 주된 기능을 담당해온 지자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요양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김으로서 요양서비스에 대한 관심 저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복지의 미래상을 대상은 이용자 중심에서 이용자를 포함한 일반주민까지로, 주체는 정부 및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 중심에서 기존 공급체계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기업, 민간사업자 등 다양화로, 복지영역은 협의의 복지에서 광의의 복지로, 서비스는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까지, 최저수준에서 최적수준으로 나아가 최고수준으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다음은 지방정부에서 이용자(주민)에게로, 민관관계는 민관간의 실질적인 파트너 형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시대의 노인복지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이용자**=현재 1~3등급 노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현재 등급외자로 분류된 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하는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세분화해

제공함으로써 중증화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도 동시에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급자**=요양서비스 공급자 진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기준 마련해 이를 통

양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요양서비스의 품질 평가인증 시스템 도입과 보험수가의 적절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

토론자로 나선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은 “노인장

공급자 진입 위한 최소한 기준 마련해야 서비스 총괄담당 요양관리사 도입 필요

과할 경우 지자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양서비스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요양기관 인정제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공급체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요양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요양서비스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서비스**=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수급자 중심에서 일반노인 중심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요양보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사례관리체계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요양관리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리체계**=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건보공단으로의 권한 집중에 대한 균형화와 함께 건보공단과 장기요

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불안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제도 정착이 이뤄지고는 있다”면서도 “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체계의 개선 문제, 비영리법인기관과 개인사업자기관과의 이해상충, 등급 및 수가 문제, 이용자 및 제공자의 인권 고양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방정문 정책실무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오영필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2010 서귀포시 행복+나눔 축제

2010. 12. 11 **토** 10:00~18:00

- **주요내용** : 기념식(유공자 포상) / 기념퍼포먼스 / 무대공연(진행 : 전문MC 김성홍) / 사회복지인 장기자랑
행복나눔장터 / 행복국수나눔 / 홍보·체험부스 / 경품추첨 / 모금행사 / 책 교환 행사 등
- **장 소** : 월드컵 경기장 지하주차장 ● **주 최** : 서귀포시 ● **주 관** :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
- **협 찬** :  제주은행  MART  Home plus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무대운영일정

- 10:00 ~ 10:20 **명덕궁 사물놀이**(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발리댄스(정혜재활원)
- 10:30 ~ 10:50 **요들공연**(천사의 집)
소리사랑의 행복한세상만들기(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1:00 ~ 11:20 **오페라기외 민요공연**(동광호도마을)
난타공연(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 11:30 ~ 1200 **두드림**(보목지역아동센터), **에이트걸즈**(샘솟는지역아동센터)
대문풍물단(대문지역아동센터)
- 12:00 ~ 13:00 **점심시간 행복국수나눔 12시-15시** ※ **경품추첨**
- 13:00 ~ 13:20 **메아리밴드**(서귀포시청공무원동아리)
- 13:30 ~ 14:10 **청소년 페스티벌**(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토평청소년문화의집)
- 블루스카이(댄스), 반팔인(힙합랩), MB샤스(마술), 해나래(기타)
- 14:30 ~ 14:50 **뮤지컬 및 그림자극, 인형극**
- 14:50 ~ 15:20 **클래식과 함께**(관악5중주, 성악)
- 15:30 ~ 16:00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 **경품추첨**
- 16:10 ~ 17:30 **나의 끼를 펼쳐보자**(사회복지인장기자랑, MC 김성홍)
- 17:30 ~ **시상식 및 폐회식**

● 부스참여기관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여성·가족분과, 청소년·청장년분과, 영유아·아동분과, 저소득분과, 통합서비스분과, (사)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평화의마을, 한국장애인부모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예수의집, 정혜재활원, 평안 전문요양원, 한빛여성의쉼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지역아동센터서귀포시지회, 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오름지역자활센터, (사)일하는사람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마을문고, 일배움터, 제주은행, 이마트서귀포점, (사)기아대책 행복한나눔가게, 서귀포시명품브랜드 홍보관, 서귀포시보건소, 서귀포 소방서, 대문동부녀회, 예술벼룩시장, 구세군

※ **체험활동참가자 선착순 500명**에 한하여 기념품(에코백)을 드립니다. ※

